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박*망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Tennessee
파견대학	Tennessee Tech University	파견기간	2014년 8월 ~ 2015년 5월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테네시 공대의 위치는 쿡빌로 네쉬빌에서 2시간 가량 차를 타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쉬빌에서 쿡빌까지 가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그레이 하운드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UCHRA라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격은 그레이하운드는 제일 싸게 했을 때 26불, UCHRA는 항상 9.50불 입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셔틀버스로 쿡빌을 돌아다닐 수 있고 학생증을 보여주면 무료입니다. 쿡빌은 시골에 가까운 도시입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이기 때문에 저녁에 다녀도 안전한 도시입니다.</p>
2014-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가을학기는 총 14학점을 들었습니다. 전공 3학점짜리 3개와 액티비티 수업 2개 영어수업 1개를 들었습니다. 공대 수업은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된 책을 가져가시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액티비티는 베이직 케이빙과 테니스를 들었습니다. 각각 1학점 씩입니다. 베이직 케이빙은 추천하고 싶은 과목입니다. 학 한기에 3번 정도 꼭 케이빙을 가는데 한번만 필수이고 나머지 두번은 안가도 성적에 무방합니다. 처음에 수업은 케이빙에서 알아야 하는 상식을 다뤄서 듣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것을 토대로 중간고사에 나오지만 친구들한테 노트필기를 빌리면 수월 합니다. 영어 수업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과목이기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줄었습니다.</p>

2015-1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봄 학기는 총 14학점을 들었습니다. 전공 1학점 짜리 1개와 3학점 짜리 교양위주 수업 4개를 액티비티 수업 1개를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수업은 듣기 편했습니다. 하지만, 액티비티 수업으로 라켓볼 수업은 비추천합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외국인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을 고려하여 오히려 그 프로그램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찾아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사계절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렷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올해 3월까지도 26도까지 올라가다가 그 다음날부터 스노우스톰이 오는 이상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덥지만, 건물을 어디든 추우니 얇은 외투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추위를 많이 타시면, 미국인 친구들은 여름 항상 에어컨을 키기 때문에 겨울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겨울용 파자마를 보관했다가 잘 때 이용하면 에어컨으로 인한 감기는 피할 수 있습니다.</p> <p>여름은 평균 27~29도 정도 이고 겨울은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겨울에도 중간 중간 따듯한 날들이 있어 가을 옷을 입었습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쿡빌의 안전은 최고입니다. 저녁에 걸어서 월마트(걸어서 40분 거리에 위치)을 다녀와도 안전합니다. 물론 걸어 다니는 사람은 인터네셔널 학생들 뿐입니다. 저녁에는 차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장난으로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할 때도 있지만, 직접적인 해를 가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보내주는 안전에 관한 메일이 올 때마다 확인해 주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사건이 해결되면 메일로 학생들에게 알려주니 그때는 다녀도 괜찮습니다. 또한 학교 안에서는 시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학교 경찰차가 순찰을 돕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인터네셔널 기숙사가 아닌 일반 미국친구들과 지내는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여자 전용 기숙사였기 때문에 생활 면에서는 편했습니다. 일반 미국 친구들과 지냈기 때문에 라이딩은 얻는 것도 쉬웠고 연중 행사가 있으면 룸메의 가족이 챙겨주어서 미국 문화를 겪는 좋은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테네시에서는 한국인이 굉장히 드물고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말(수영장이 있냐 다운타운이 있냐 초콜릿은 먹어봤냐)등의 어이없는 질문을 하는 개념 없는 미국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무시해 주는 게 1년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안정에 좋습니다.</p>
식사	<p><i>학교 Meal Plan (0)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i> <i>외부식당 () 직접 요리 (0) 기타 ()</i> <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처음 학기는 밀 플랜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기숙사는 신입생들이 주로 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첫 학기는 주로 학교 식당을 이용하기에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학교 식당을 이용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학교생활에 적응이 되고 친한 친구들끼리 돈을 걸어서 음식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2학기때 주로 교양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가능했습니다. 전공 수업이 많거나 점심시간이 애매하면 학교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나은 방법입니다.</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시내 교통은 UCHRA와 그레이하운드가 전부 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야만이 네쉬빌 도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쉬빌을 가더라도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로 택시를 이용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갈 때 117만원 올 때 55만원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미리 보험을 사서 갔습니다. 미국을 떠나기 일주일 전까지 보험회사를 비교해봐서 개인한테 맞는 보험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	한 학기당 1900불씩	보통 기숙사는 2200불씩입니다. 하지만 저는 3인실을 살아서 학기가 끝날때마다 300불씩 돌려받았습니다.
식비	가을 학기 밀플랜 900불정도 봄학기 밀플랜 25개 구입 후 밀 달러 충전으로 사용!	
교통비		
책값		
기타1		
기타2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꼭 전기장판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은 추워지면 바로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 오기 때문에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사용해도 감기가 걸리기 쉽습니다. 한국음식은 사지 않고 가시길 바랍니다. 월마트나 크로거에서 한국 음식을 팔기 때문에 굳이 부피를 차지하면서 챙겨가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부터 크로거에서 김치를 파는 것을 봤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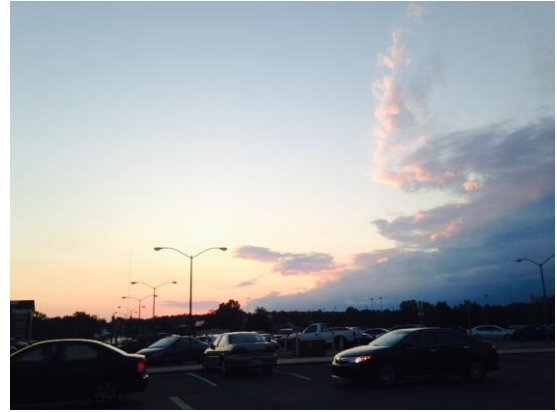
아직 미국에서 부친 짐도 도착하지 않고 이리저리 정리해야 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니 제가 경험한 미국에서의 1년이 꿈만 같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파견된 좋은 한국인 친구들과 미국친구들을 알게 된 것이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 날들이 많았지만, 그 날들이 이제는 너무 그립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알게 모르게 당한 차별은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동안 비자나 비행기표나 각자 알아보고 하는 것이 힘이 들고 스트레스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환학생을 파견 나가는 동안은 다른 학교에서 파견된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순천향대만큼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는 학교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울산대에서 매학기 10~20명 가까이 파견이 되기에 친해지는 사람들이 울산대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울산대 친구들은 받은 만큼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한국보다 학교생활을 힘들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되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이유로 교환학생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등 학생과 국제교류본부와의 마찰을 많이 겪고 그 전 파견된 학생들과의 소통이 없기에 파견 온 친구들이 도움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실제로 순천향대로 파견 왔던 미국인 친구들이 학교 내에서 마주치면 먼저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면서 자기가 순천향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거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친구들과 한국음식, 문화가 너무 그립다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전화번호도 주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작성하는 보고서가 다음 파견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전에 파견했던 분들이랑 파견 중에 연락을 되었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따로 연락이 된다면 파견생활 중 힘든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만큼은 한국처럼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그 시간으로 더 많은 경험이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공대건물</p>	<p>크로포드 여자기숙사</p>
	
<p>쿡빌 다운타운</p>	<p>학교본부</p>



3인실 기숙사 내부



흔한 쿨빌의 핑크빛 하늘